

2026

설 명절 가정예배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

다같이

- 1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포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대표기도

담당자(뒷면참조)

성경봉독

창세기 28장 16 - 19절

다같이

-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설 교

인도자(뒷면참조)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예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예문

'벤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지명 중 하나입니다. '벤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기억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상황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독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급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 야곱은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협과 자신을 지켜줄 안식처가 없다는 절망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을 '벤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을 때는 그곳이 절망의 땅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야곱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벤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이 너무나 귀해서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벤엘과 같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들은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을 승리의 확신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는 상황을 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